



2007 도약하는 항토우수기업

④ 광주 토황토

‘휴대용 찜질기’ 웰빙 바람타고 대박

능을 첨가한 이 제품은 아파트 생활에 익숙해진 ‘현대식 부부’들에게 최고의 효도상품으로 각광받고 있다.

지난해 12명의 직원이 국내시장을 누비며 10억여원의 매출을 올린 ‘토황토’(대표 강경숙·사진·42)는 올해 20억원의 매출을 꿈꾸고 있다.

이같은 배경에는 황토 한 스푼가락에 5억개의 미생들이 살아있다는 홍보가 적잖은 효과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또 황토에 들어있는 ‘카타리제’라는 효소는 과산화수소, 과산화지질 등을 분해함으로써 건강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한다.

또 황토는 디페놀(중금속 분해효소), 옥시티아제(산화물 분해효소),

12명의 직원으로 올 매출 20억 노려 세라믹 이용 찜잔·타일 개발도 도전

사카라제(당분해 효소), 프로테아제(단백질 분해효소) 등 다양한 효소를 함유하고 있어 성인병을 예방하고 독소를 제거하는 등 정화작용이 탁월하다.

강 대표는 “찜질방 용도의 황토볼(구슬)을 넣으면 원적외선 효과를 통해 혈액순환 촉진, 통증 완화, 노폐물 배출, 쾌변 등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서 “황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세라믹을 이용한 고급 술잔, 찜잔, 화병, 타일 개발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995년 설립된 토황토는 2003년 호남대와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협약을 체결하면서 탄력을 받기 시작했다. 또 지난해 11월에는 제3회 대한민국 지역혁신박람회 중소기업 혁신관에서 우수업체로 선정되기도 했다.

“모든 고객들을 가슴으로 만나고 싶습니다. 일반 제조업체처럼 짝어내는 작업이 아니라 모두 손으로 만들어내는 상품이라 하나하나가 내 자식 같아요.”

강 대표는 “앞으로도 내 이웃의 건강과 환경, 내 부모를 챙기는 실용적인 제품을 만드는 데 관심을 기울여겠다”고 말했다.

토황토는 지난해 11월 전기·전자 응용기기와 이·미용기기 부문에서 ISO9001 인증을 획득한 데 이어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으로부터 이노비즈(INNO·기술혁신형 기업) 인증을 받기도 했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토황토는 소량다품종으로 틈새시장을 노린다. 강 대표와 남편 김민호씨가 세라믹 화병과 황금타일 등을 싣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은행계 카드사 ‘공격경영’

수수료 인하·고객 모집 등 경쟁 치열

하나은행이 다음달부터 신용 카드 수수료를 인하에 나서는데 연초부터 은행권내 카드고객 확보 경쟁이 불을 뿜고 있다.

10일 은행권에 따르면 하나는 다음달부터 신용카드 수수료를 고객 신용도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방식으로 체계를 개편키로 했다.

현재 이용기간에 따라 18.72~25.52%가 적용되고 있는 현금서비스와 리볼빙 수수료율은 내달부터 이용기간에 관계없이 신용도에 따라 9.9~26.9% 범위에서 적용된다.

이에 따라 최우수 회원이 58일간 현금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이달까지는 25.52%의 수수료가 일률적으로 적용되나 다음달부터는 15.62%포인트나 낮은 최저 9.9%를 적용받을 수 있다.

할부 수수료율은 현재 12.5~19%에서 9.2~22.9%로 조정돼 최저 수수료가 3.3%포인트 낮아지게 된다.

하나은행이 수수료를 조정해 나선 것은 신용도가 우수한 카드고객

을 대거 확보하기 위한 포석이다.

하나은행은 올해 카드 고객을 작년의 두배인 600만명으로 늘리고 매출액도 작년보다 35.5% 많은 14조3천억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를 위해 하나금융그룹 계열사 금융상품을 전담 판매하는 하나GMG(글로벌마켓그룹)와 계약을 맺고 내달부터 카드고객 모집에 나설 계획이다.

앞서 하나은행은 지난해말부터 기업회원의 자급관리를 돕기 위해 신용카드 한도를 일간한도 방식에서 통합한도방식으로 변경했다.

우리은행은 이를 통해 지난해 6%였던 시장점유율을 7.6%로 확대하고 매출도 30% 늘릴 계획이다.

국민은행도 최근 한류스타인 보아와 비를 내세워 대대적으로 KB카드 광고를 내보내고 있고 외환은행도 다양한 카드고객 사은행사 등을 통해 지난해 제매각 논란 등으로 위축됐던 카드영업력 회복에 나서고 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주택대출 조이자 마이너스 통장 ‘불쑥’

지나해 가계대출 증가액 40조원 돌파

부동산 광풍이 불었던 지난해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액이 40조원을 돌파하면서 2002년 카드대출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또 은행간 외형확대 경쟁이 일면서 기업대출 증가액도 42조원을 넘어섰다. 1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06년 12월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액은 40조9천억원으로 2002년 61조6천억원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가계대출이 급증한 것은 주택담보

대출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지난해 연간 주택담보대출은 26조8천억원이 늘어나 2002년 45조5천억원 이후 증가폭이 가장 컸다. 2002년 당시에도 부동산 문제가 부각됐었다.

12월 한달간만 보면 주택담보대출은 감독당국의 잇단 규제와 대출금리 상승에도 불구하고 3조2천억원이 늘었다. 4년2개월 만에 최고치를 보였던 11월(4조2천억원)보다는 증가세가 다소 둔화했지만 최근 5년간 월 평균 증가액 2조2천억원(한은 추산)과

비교할때는 1조원이나 많은 액수다. 대신에 주택담보대출 신규 수요는 마이너스 통장 대출로 이전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마이너스 통장 대출 증가폭은 전월 1조5천억원에서 1조7천억원으로 확대됐다. 통상 연말에는 상여금 등이 지급돼 대출을 갚아버리기에 대출 증가폭이 줄어드는데 지난해에는 오히려 늘어난 것이다.

지난해 은행들의 기업대출 증가액도 연간 42조2천억원을 기록, 전년(15조원)보다 3배 가까이 많았다. 이는 한은이 통계를 작성한 2000년 이후 최고치다. /장필수기자 bungy@

‘엄마’ 채용땀 장려금 준다

3월부터 출산 등으로 이직하던 여성근로자를 신규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최장 1년 동안 월 30만~60만원의 채용장려금이 지급된다.

노동부는 10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고 3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신, 출산, 육아 등을 이유로 회사를 그만 둔 여성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사업주에게 처음 6개월 동안은 월 60만원, 나머지 6개월에는 월 30만원이 지원된다.

현재 월 40만원씩 지급되는 육아유지 급여는 월 50만원으로 오

고용 사업주에 3월부터 월 60만~30만원 지급

른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직여성 신규채용 장려금 등은 출산 및 육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근로자의 취업활동을 돕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연행뉴스

“상·하수도 관리 효율성 높일 것”

김세주 수자원공사 신임 전남본부장



“고객 서비스 제일주의로 일하는 물론 다목적댐-하천-광역상수도-지방상수도-하수처리 등 물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근 부임한 김세주(57) ‘K water’ 한국수자원공사 전남지역본부장은 “특히 나주시·함평군 등 지역 상수도의 성공적인 위수탁 계약을 체결, 지역민들의 불편을 덜어드릴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올해 지역본부에 많은 업무가 이관되는 것을 계기로 상수도 관련업무에 관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조직혁신을 이

루겠다”면서 “서로 칭찬하고 배우며 화합하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고객들이 감동하는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영광출신인 김 본부장은 사려 지고, 전남대 기계공학과, 강원대학교 경영대학원을 나왔다.

1980년 입사후 울산권 관리단장, 충청지역본부 운영처장 등을 역임했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기아차 로체 타이어 결함 수리 권고

기아차에서 판매중인 로체 승용차 가운데 타이어 일부에 소비자의 불만이 제기돼 정부가 무상수리할 것을 권고했다.

10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제31차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를 열고 로체 승용차에 대한 제작 결함을 예비 조사한 결과, 로체의 주행 중 솔림 현상이 타이어 때문에 발

생한 것으로 보고 불만을 제기한 소비자에게 무상 수리해 줄 것을 기아차에 권고했다. 제작결함심사평가위는 승용차 주행시 타이어의 횡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 비슷한 타이어를 장착해야 하지만 일부 로체 승용차의 경우 서로 다른 타이어가 앞뒤에 장착돼 타이어 솔림 현상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임동욱기자 tuim@

Advertisement for air conditioning and air purifiers. Title: 에어컨+난방기+공기정화기를 1대로. Includes contact info: 080-701-7117.

Advertisement for Gukje Wok Food Industry (주). Title: 국제 외식산업(주). Includes contact info: (062) 262-2278.